

## 법관 개인전

### 《선禪2022》



〈선2021〉

2021

캔버스에 아크릴릭

162x130cm

전시제목 : 법관 개인전, 《선禪2022》

전시기간 : 2022년 03월 30일(수) – 2022년 05월 01일(금)

전시장소 : 학고재

[오프라인]

(서울 종로구 삼청로 50)

출 품 작 : 총 44점 (회화 42점, 족자  
1점, 다완 1점)

문 의 : 02-720-1524~6

답 당 우정우 wcw@hakgojae.com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20330-20220501\_법관, 선禪2022

학고재 오룸(OROOM)

[온라인]

(online.hakgojae.com)

총 55점 (회화 53점, 족자 1점,  
다완 1점)

###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22년 3월 30일(수)부터 5월 1일(일)까지 법관(b. 1957) 개인전 《선禪2022》을 개최한다. 2002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30년 동안 선화(禪畵) 작업을 이어온 작가의 신작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법관은 40여 년간 수행에 정진해온 선승이다. 그가 선보이는 '선화'란 부처의 정신과 화두가 담겨 있는 선종미술의 한 형태이다. 승려들의 수행 과정에서 '마음'의 영역을 화필 위에 표현한 것으로, 고유의 독자성을 품고 있다. 법관의 선화는 '선'의 세계와 수행에서 얻은 정신을 현대적 조형 감각으로 풀어내기 위한 작업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법관이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제작한 <선> 연작 42점을 만나볼 수 있다. 직접 빛은 다완과 족자 그림도 선보인다.

## 2. 전시 주제

### 법관의 선화(禪畵) - 수행의 흔적을 품은 화면

선화는 한국 선불교의 유산으로, 선 수행을 하는 승려만의 전유물이다. 법관의 선화는 불가의 사상에 기초한 수행의 일환이다. 초월적 존재 아래의 겸허한 인간이자 예술가, 승려로서 수행의 과정을 기록하려는 의지이다. 법관의 작업은 과정적 행위에 집중한다. 화면은 시간과 노력을 쌓아 올린 결과물로서 나타난다. 형(形)의 재현에서 벗어나 정신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법관의 궁극적 목표다.

법관은 사물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대상 고유의 아름다움을 끌어내고자 하는 오랜 버릇이다. 사물의 균형을 해치지 않으며, 존재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불가의 가르침의 일환이다. 이러한 점은 작가의 작업세계에서도 드러난다. 화면은 수많은 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가는 민화에서 드러나는 서정적인 선을 '한국적인 획'이라 칭하며, 투박하지만 강한 부드러움을 보여준다고 했다. 팽창하고자 하는 직선과 품어내고자 하는 곡선의 만남이 '확장과 융화(融和)의 충돌'로 새로운 에너지를 이끌어낸다. 법관의 붓끝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작가의 작업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압도한다.

### 법관의 《선禪2022》 - 법관의 학고재 첫 개인전

이번 전시는 법관이 학고재에서 선보이는 첫 개인전이다. 전시에 선보인 44점의 작품은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제작한 <선> 연작 시리즈 42점과 족자 1점, 다완 1점으로 구성되었다. 다채로운 색상과 크기의 작품을 선별하여 법관의 작품세계 정수를 보여주는데 집중하였다. 작가는 수행의 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내면을 작품에 그대로 담아내고자 했다. 그림은 그리는 사람의 내면까지 그대로 투영한다는 믿음으로 작업을 이어나간다. 마음이 행동이 되며, 행동이 곧 작품이 된다는 신념이다. 작품이 삶과 일치하고자 하는 예술세계를 향한 순수 의지이다. 차 한 잔을 마시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하루의 15~20시간 동안 그림을 그린다. 승려로서의 일상이 곧 작품이 된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복적 행위의 작업은 선(禪)의 세계를 추구하는 수행의 한 방법이자, 삶 자체이다.

### 3. 작품 소개



〈선2021〉  
2021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x97cm



〈선2021〉  
2021  
캔버스에 아크릴릭  
32x41cm



〈선2021〉  
2021  
캔버스에 아크릴릭  
162x130cm



〈선2022〉  
2022  
캔버스에 아크릴릭  
73x61cm

이번 전시는 작가의 <선> 연작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이다. 캔버스에 아크릴로 그린 회화 42점과 족자 1점, 다완 1점 등 총 4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벽면을 메우는 크기의 대형 회화부터 한눈에 담기는 소품까지 화면의 규모가 다채롭다. 학고재 본관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선>(2021-2022) 3점을 마주하게 된다. 작품은 청색이나 적색, 황색, 흑색 등 한국 전통의 단색들이 주를 이룬다. 작가가 사용하는 다양한 색채들은 마음과 관계가 있다. 그 내면에 존재하는 정신성이 반영되었다. 법관의 색은 선과 면, 번짐과 여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색채가 갖는 특성보다 작품의 정신성을 더욱 드러낸다.

전시장 안으로 시선을 옮기면 중앙 벽면에 걸린 회화 <선2021>(2021)가 눈길을 끈다. 먹색과 푸른 빛깔을 아우르는 묘한 색감과 중앙에 보이는 사각의 형상은 법관의 최근 신작으로 <선> 연작의 정점을 보여준다. 작품 속 은근히 드러나는 질감과 선의 질서들은 한국 전통 삼베를 연상시킨다.

동선을 따라 연이어 걸린 회화들을 살펴보면 작가가 강조한 '선'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펼쳐진다. 특히 법관의 소형 회화에서는 다양한 획들의 노래가 들린다. 작품 속 획들은 작가의 붓 끝에서 탄생했지만, 그들만의 리듬과 운율로 캔버스 안을 가득 채운다. 투박하지만 담백하고, 부드럽지만 단단해 보이는 선들의 이야기는 어떤 서사적 형상만큼이나 자신을 담담히 풀어내고 있다. 특히 <선禪2021>(2021)의 화면 속 어렵듯이 드러나는 곡선의 반복은 흐르는 물줄기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드러내지 않아도 은은하게 풍기는 아름다움은 법관이 그어낸 가로와 세로의 선들의 만남으로 인하여 또 다른 '공간'으로 존재를 드러낸다.

#### 4. 작가 소개

법관은 1957년에 태어났다. 2002년 강릉의 선아트 화랑에서 연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인사아트스페이스(서울), 한가람미술관(서울), 한국미술관(용인), 올미아트스페이스(서울), 갤러리마크(서울), 갤러리C(대전) 등 국내 우수 기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물파스페이스(서울), 리안갤러리(서울; 대구)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현재 강릉 능가사(楞伽寺)에 머물며 수행과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 5. 작가의 글

##### 《선禪2022》에 붙여

법관

천 길 물속을  
손가락 한번 튕김으로  
알 수 있으랴

보이는 것을 넘고  
무의식을 관통하여

그림자 없는 나를 찾아  
붓끝이 닳아 없어짐이 얼마이던고

푸른빛 쫓아  
긴 시간 꿈을 깨워

수행의 흐름을 담아내고자  
먼 길 떠나네

## 6. 전시 서문

\*서문에서 4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고재로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날줄과 씨줄의 교직에서 파상의 반복적 곡선으로

윤진섭(미술평론가)

#### I.

얼마 전 이 글을 쓰기 위해 강릉에 있는 법관의 작업실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뜻밖에도 초기의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 오래된 레코드판에 그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크기의 캔버스 작품에 이르기까지, 초기의 습작들은 소품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선해 보였다.

신선해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관의 경우에 이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의외의 단면을 지니고 있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내가 법관의 단색화에 대해 여러 차례 글을 썼는데, 그 글들은 대개 2010년대 중후반 이후에 제작된 그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글들을 쓸 당시 내가 참고할 수 있었던 작품들은 거슬러 올라가 봐야 90년대 후반을 넘지 않았다. 그 이전, 그러니까 법관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후반의 작업 내용은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에 내가 법관의 초기 그림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초기 작업을 살펴본다는 것은 곧 법관 회화의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뿌리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

그러나 법관 작업의 뿌리에 대한 연구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생각보다 작품의 양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우선 손에 닿는 대로 약간의 작품을 살펴보았을 뿐 전모를 파악하는데에는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나는 이번에 살펴본 약간의 초기 작품들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 II.

법관의 초기 작품들은 대개가 4호 미만의 소품들이다. 그보다 큰 작품들도 있지만 이번에는 우선 손에 닿는 대로 작은 크기의 캔버스 작품과 레코드판에 그린 그림들을 살펴봤다. 그 그림들은 주로 법관이 선묘와 색, 그리고 회화에 있어서 구성의 문제를 고심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법관이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화가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림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과 표현 욕구를 풀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론을 탐색했을 당시의 정신적 고뇌를 대변해 주는 것이다.

나는 한 점의 그림을 본다. 청색 바탕에 검정색 선들이 이리저리 뻗어있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오늘날 보는 것과 같은 법관의 청색 단색화의 맹아(萌芽)가 되는 작품으로 추정된다. 내가 이 작품을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째, 법관이 청색이라고 하는 단색에 관심을 맨 처음 보이기 시작한

것이며, 둘째, 선묘를 통해 자신의 작의(作意)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마치 고구마 넝쿨이 허공을 향해 생장 욕구를 키워가듯이, 법관이 청색의 캔버스 공간에서 검정 선묘를 그어가면서 공간에 대한 탐색을 해 나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 이후에 연속해서 그린 작품들을 통해 법관은 가늘고 예리한 선묘로 마치 아메바처럼 원형질적이며 유기적인 형태를 지닌, 의식 내면에서 이는 환상적 풍경을 화면에 옮기는 작업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류의 그림들은 아직 온전한 성체(成體)로 성장하지 못한 아득한 옛날 인류의 초기 형태를 연상시킨다. 그것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인류가 태어나기 이전 바닷속에서 살아가던 미물일 때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그 시간이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영역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법관은 캔버스 화면에서 색과 선, 면이 차지하는 의미에 대한 탐색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많이 그렸음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다 자세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우선 이번에 잠시 둘러본 초기 작업들은 법관의 그림에 대한 내공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단단한 것임을 알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내게는 적지 않은 수확이었다.

### III.

법관이 그림을 그리던 초기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한국 단색화의 중요한 대표적 작가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가 이 위치에 오를 때까지 십수 년간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의 작품세계에 관해 글을 썼다. 법관 단색화의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그동안 쓴 나의 글 중에서 이 점에 대해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여겨지는 문장을 여기에 잠시 인용하고자 한다.

“법관의 단색화는 색을 통해 지고한 정신의 세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의 매체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논평했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물상들을 단순한 도형으로 상징화하는 작업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것이 지난 15년간에 걸쳐 이룩한 법관의 회화 작업의 대강이다. 처음에는 산, 물, 풀, 바위와 같은 사물들을 단순화하여 마치 탕화를 연상시키는 화려하고 장엄한 색채로 형상화했으나, 점차 이를 분절하고 파편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는 수년에 걸친 해체의 시기를 거친 후 마침내 단색의 세계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그의 단색화는 어느 날 갑자기 비롯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그러니까 청과 적, 황(黃)이 주를 이루던 다색 반추상화의 시기에 그 징후가 이미 내장돼 있었다고 하는 편이 옳다.”

여기서 나는 이 글을 쓸 당시만 해도 아직 앞에서 언급한 청색조의 선묘 작품을 접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법관은 왜 십수 년간이나 이 초기 작품들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일까? 법관은 내게 ‘부끄러워서’ 그러했다고 말했다. 순간 나는 그렇게 말하는 법관의 표정에서 겸손을 읽을 수 있었다. 화가에게 있어서 겸손이란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 탐구하는 자에게서 보이는 이 겸손의 정신은 아직도 개척해야 할 경지가 많이 남았다는, 자기 예술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법관에게 있어서 이 겸손한 태도는 그의 예술을 늘 새롭고 신선하며, 갱신해야 할 그 무엇으로 만든다. 따라서 법관에게 있어서 그림이란 한눈에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다른, 즉 같음과 다름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변주와도 같은 것이다. 반복적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씨줄과 날줄에 의한 교직(交織)은 마치 이 세계가 다양한 종(種)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거기에는 같으나 서로 다른 차이들을 지닌 수많은 개체들의 상징처럼 보인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저 솔한 반복적 행위들을 설명할 방도가 없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 수화 김환기는 뉴욕 시절에 청색 점화를 제작하면서 서울에 두고 온 친구들을 생각하며 점을 찍는다고 말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우주를 사념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법관은 밤하늘의 별들을 생각하며 수평과 수직의 교점을 반복하는 지도 모를 일이다. 선(禪)의 세계를 추구하는 법관은 수행의 방편으로 그림을 택했고 그림은 이제 그의 삶 자체가 되었다.

시간과 장소는 법관의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시간이란 계기를 통해 캔버스에 선을 긋고, 반복되는 행위의 흔적인 가로 세로의 교차점은 장소가 된다. 그 선들은 어디에 있는가. 다름 아닌 법관의 캔버스 위이다. 그것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법관이 투여한 시간에 의해서다. 투여한 시간에 비례하여 화면에는 밀도가 생기고 밀도는 그만큼 화면에 생기를 부여한다. 공력은 그리하여 법관의 그림에서 중요한 창작의 요소로 떠오른다. 어쩌면 진리의 구경(究竟)은 행위의 반복의 수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찍이 내가 법관의 전시 서문에 쓴 다음의 글을 읽어보자.

“인과론적 독재의 논리에서 벗어나 상대론적 관계성에 입각해 정신의 여유를 찾고자 하는 것이 법관이 지향하는 태도가 아닐까 한다. 그의 그림에는 무수한 빗금들이 존재한다. 가로와 세로로 겹쳐진(+) 무수한 선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화면 위에 공존한다. 그렇게 해서 기왕에 그려진 선들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그 위에 다시 새로운 선들이 자리 잡는다. 시간이 갈수록 그것들은 다시 화면 바닥으로 가라앉고 다시 새로운 선들이 나타난다. 이 선들의 공존은 융화(融和)의 세계를 이루며, 세계는 다시 반복되기를 그치지 않는다. 법관의 그림은 따라서 완성이 아니라 오로지 완성을 지향할 뿐이다.”

#### IV.

법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새로운 표현 방법을 시도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즉, 이제까지 지속해온 수직과 수평적 선의 교직에 다시 또 다른 방법을 그 위에 얹은 것이다.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법관은 넓은 평붓에 물감을 묻혀 가지런히 캔버스 표면에 칠하는 특유의 기법을 개발했다. 이제 법관의 단색화 그림은 전혀 새로운 느낌을 준다. 날줄과 씨줄이 무수히 겹쳐 검거나 푸르게 보이는 화면 위에 찍힌 선들은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곡선들은 무수히 반복되면서 지문이나 혹은 고목의 나이테를 연상시킨다.

파도가 해안에 도달해 무수히 반복되는 파상(波狀)의 그림을 그리듯, 자연현상은 반복을 요체로 삼는다.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해가 진다. 꽃이 피면 질 때가 있고,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긴 인류사에 대입하면 그 또한 반복이 아닌가. 그렇다면 명상과 참선을 통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법관이 그 방편으로 반복을 요체로 삼는 단색화를 그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번 전시에 법관이 선보이는 검정에 가까운 진회색 작품들은 청색으로 대변되는 법관의 작품세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그 이전에도 회색 작품들이 있었지만, 이번 작품들은 이른바 파상(波狀)의 지문이나 나이테를 연상시키는 화면 구성을 통해 새로운 미감을 보여준다. 이 청색과 검정색이 보여주는 법관의 단색화에 대해 일찍이 나는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법관의 단색화 작업이 나날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청색과 검정 사이에서 벌어지는 색의 담백한 향연. 기존의 어떤 형태도 거부하는 그는 오로지 선을 긋고 점을 찍는 필획(筆劃)의 반복적 행위를 통해 정신 수행의 올곧은 길을 가고자 한다. 그것은 속세의 번뇌와 잡사(雜事)를 털어버리고 해맑은 정신의 세계로 잠입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로일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그림이란 곧 수행의 방편이지만, 불가(佛家)의 울타리를 벗어나 그림이 화랑 벽에 걸리면 세속적인 의미에서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변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것은 곧 비평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과연 법관의 작품 세계는 미술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법관은 20여 년에 걸친 미술계의 활동을 통해 이제 후기 단색화의 대표 작가 중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법관은 지칠 줄 모르고 작업을 하는, 철학자 고(故) 조운제의 표현을 빌면 ‘은근과 끈기’의 작가이다. 이번에 나는 법관의 작업실을 둘러보면서 초기 작업을 볼 수 있었고 이는 향후 그의 예술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단초가 되었다.

작가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 의심해서 귀중한 작품들을 파기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법관도 그랬다. 어떤 사람이 초기 선묘 그림을 보고 “후안 미로를 연상시킨다”고 한 말이 상처가 돼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의 초기 그림에서 많은 가능성을 보았으며, 작가로서 법관의 재능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재능이 있었기에 오늘의 법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 7. 작가 약력

### 법관

#### 주요 개인전

2022 선禪2022, 학고재, 서울

2021 인사아트센터, 서울

2019 갤러리C, 대전



- 광안갤러리, 부산  
올미아트스페이스, 서울
- 2018 갤러리마크, 서울  
올미아트스페이스, 서울
- 2017 중앙갤러리; 갤러리중앙202, 대구  
올미아트스페이스, 서울  
갤러리C, 대전  
갤러리조이, 부산
- 2016 갤러리애플, 전주  
선화랑, 서울
- 2015 갤러리 이즈, 서울  
미광화랑, 부산
- 2014 에이블 파인 아트 엔와이 갤러리, 서울
- 2013 한가람미술관, 예술의전당, 서울
- 2012 경인미술관, 서울
- 2011 인사아트센터, 서울  
강릉문화예술관, 강릉
- 2010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트갤러리, 부산
- 2009 인사아트센터, 서울
- 2007 인사아트센터, 서울  
물파스페이스, 서울
- 2006 윤갤러리, 서울  
미광화랑, 부산
- 2004 우림화랑, 서울  
국제신문 문화센터, 부산
- 2002 선아트갤러리, 강릉

### 주요 단체전

- 2018 한국의 후기 단색화, 리안갤러리, 서울; 대구
- 2014 별이 되다, 한국미술관, 용인
- 2010 존불(存佛)\_내 부처를 찾아서, 물파스페이스, 서울  
3인 3색 초대전, KBS춘천방송총국, 춘천